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중국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구

A study of Korean
'geumanduda/geuchida/kkeutnada/kkeutnaeda/machida'
corresponding to Chinese 'jieshu'

울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왕 원

중국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구


지도교수 유 필 재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교 육 학 과
왕 원

왕원의 문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이 은섭 

심사위원 노 경희 

심사위원 유 필재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2년 2월

<초록>

중국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구

왕원(WANG YUAN)

외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어휘와 한국어 어휘의 의미가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중국어 단어 ‘結束’가 그러한 경우인데, 한국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대응한다. 외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어휘와 한국어 어휘의 의미가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경우 모국어 단어의 의미를 한국어 어휘로의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의 다양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미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구분과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휘의 구별은 큰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어렵고, 모호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를 대상으로 삼아 문법 정보와 사전 의미, 문형 정보 그리고 연어 정보 및 공기 부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중국인 학습자가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어휘 사용에 있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의 구성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의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 단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를 변별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변별하고자 했다.

제 2 장은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법적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고, 사전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적 의미를 구분했다.

제 3 장에서는 문형 정보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어 동사의 기본 문형에 대해 알아보고,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 각각의 문형 정보를 알아본다. 기존 사전에서의 문형 정보를 알아보는데, 세부적으로 자동사/타동사/양용동사별 문형에 대해 알아본다. 기존 사전에서의 문형을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뭉치에 나타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형 정보와 실현 양상에 대해 추가로 알아냈다. 기본 문형에서 나아가 연구 대상의 부정문 문형 구조 또한 알아봄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냈다.

제 4 장에서는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어 정보와 공기 부사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각 단어별 차이를 명확히 했다. 자동사는 주술 관계의 연어 정보에 대해 분석했고, 타동사는 목적 관계의 연어 정보에 대해 분석했다. 양용동사의 경우 주술 관계 연어, 목적 관계 연어 정보 두 가지 모두 분석했다. 더하여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공기하는 부사 정보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차이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에 대해 한국어 교육에의 제언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의미와 문형, 연어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중국어 단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어휘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논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학습자의 모국어 어휘와 한국어 어휘의 의미가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경우 올바른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중국인 학습자, 말뭉치, 문형, 공기 빈도

목 차

초록

1. 서론	1
1.1.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대상	1
1.2. 선행 연구	2
1.3. 연구 방법	3
2.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법 정보와 사전 의미	3
2.1. 단어 형성	4
2.2. 동사 분류	4
2.3. 사전 의미 분석	5
3.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형 정보	8
3.1.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기존 사전 문형 정보	9
3.1.1. 자동사 ‘끝나다’의 문형	10
3.1.2. 타동사 ‘그만두다’, ‘끝내다’의 문형	10
3.1.3. 양용동사 ‘그치다’, ‘마치다’의 문형	10
3.2. 말뭉치에 나타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형 정보와 실현 양상	12
3.3.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부정문 문형	16
4.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어 정보 및 부사와의 공기	18
4.1.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어 정보	19
4.1.1. 자동사 ‘끝나다’의 주술 관계 연어	19
4.1.2. 타동사 ‘그만두다’, ‘끝내다’의 목술 관계 연어	20
4.1.3. 양용동사 ‘그치다’, ‘마치다’의 주술 관계 연어 및 목술 관계 연어	22
4.2.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부사의 공기	26
5. 결론	28
5.1. 본문의 요약	28
5.2. 한국어 교육에의 제언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

표 목 차

<표 1>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 현대 국어 실생활 사용 빈도	1
<표 2>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동사 분류	5
<표 3>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사전적 정의	5
<표 4>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사전 의미 구분 ‘종결’, ‘중단’	8
<표 5>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기본 문형과 실현 양상	15
<표 6>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부정 표현 사용 빈도	16
<표 7> 세종 말뭉치에서 ‘끝나다’의 공기 명사	19
<표 8> 세종 말뭉치에서 ‘그만두다’의 공기 명사	20
<표 9> 세종 말뭉치에서 ‘끝내다’의 공기 명사	21
<표 10> 세종 말뭉치에서 ‘그치다’의 공기 명사	22
<표 11> 세종 말뭉치에서 ‘마치다’의 공기 명사	24
<표 12> 연세 말뭉치에서 ‘마치다’의 공기 주어	24
<표 13>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부사의 공기 관계	26
<표 14>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정리	30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대상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해당 언어에 대한 지식, 정보 등을 알기 위함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의 생활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데,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어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해당 언어의 문법을 몰라도 간단한 몇 가지의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국어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어렵다. 이뿐 아니라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어휘의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의사소통에 있어 오해가 생기기 쉽다. 특히 한국어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휘에 관하여 한국어 외국인 학습자들은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구별에 있어서 비교적 어려움이 적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중국어 단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에는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가 있다. 그래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같은 유의 관계의 단어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언어 학습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낯선 유의어에 관한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구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을 돕는다. 실제로 중국어 ‘結束’의 의미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 단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1>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 현대 국어 실생활 사용 빈도

단어	순위	빈도
그만두다	958	214
그치다	836	337
끝나다	348	1084
끝내다	867	305
마치다	745	431

「현대 국어 사용 빈도2」¹⁾에 나타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실생활 사용 빈도는 <표1>과 같다. <표1>을 통해,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는 모국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단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

1) 국립국어연구원(2005가), 「현대 국어 사용 빈도2」, 담당 연구원: 김한샘.

다/마치다'의 사용에 있어서 사전적인 정의에 의존한다. 그래서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다섯 단어의 정의를 보면 의미가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다.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 다섯 단어의 의미가 유사하여 서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의미에서 차이를 보인다. 의미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문형 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 (1) 가. 자네, 그만 놀고 빨리 나머지 일을 마치게/ 끝내게/ *그만두게/ *그치게/ *끝나게.
나. 싸움 마치다/ 그만두다/ 그치다/ 끝나다/ 끝내다.
나'. 싸움을 마치다/ 그만두다/ 그치다/ 끝내다/ *끝나다.

(1가)의 '마치다' 쓰임에 '끝내다'는 바꾸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만두다', '그치다', '끝나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1나)의 '마치다'의 쓰임에 '그만두다', '그치다', '끝나다', '끝내다'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의미가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의미 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나')에서 '싸움'을 목적어로 사용하므로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 '끝나다'는 사용할 수 없다. 이는 각 동사별 문형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중국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법적, 의미적 차이를 밝혀 중국인 학습자가 이들을 정확히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어휘 교육에서 유의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유의어 관련 연구에는 박재남(2002), 유현경·강현화(2002), 문금현(2004가), 봉미경(2005) 등이 있다.

박재남(2002)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유의어 오용 실태를 평가를 바탕으로 유의어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고, 이를 통해 유의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효과적인 한국어 언어 교육을 위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재 속의 유의어를 정리하고 유의어 의미 차이에 대한 양상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어휘 전문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현경·강현화(2002)는 한국어 유사 어휘군 어휘 교육에 있어서 기존 의미 중심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냈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해 격률 및 논항 정보, 화용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소현(2004)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부끄러움'과 관련된 다섯 단어를 구체적인 예로 들어 의미 변별에 대한 연구를 했다. 실제 사용 상황별로 단어의 의미 및 차이를 비교했고, 교수자의 유의어 지도 순서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의미 중심의 교육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금현(2004)은 한국어 교재에 출현하는 유의어 학습 목록을 초급 단계와 중급 단계별로 선정했고 고급 단계에서는 교재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필요한 보충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유의어 비교 학습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했다. 의미 변별 기준을 단계별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고급 단계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봉미경(2005)은 시간 부사 ‘방금’과 ‘금방’의 의미에 대해 밝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두 어휘의 문법적 지위, 문법적 제약, 연어 정보, 문체적 정보, 빈도 정보 등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본고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자료로써, 중국어 모국어의 단어 ‘結束’에 대응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 간의 의미 차이와 사용 양상에 대해 구분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껴, 본고에서는 중국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 각 단어별 문법적 정보와 사전 의미, 기존 사전과 말뭉치에 나타난 문형 정보, 연어 정보 및 부사와의 공기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1.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법적인 정보, 사전 의미, 문형 정보와 어휘간 공기 정보를 조사함으로써 다섯 어휘의 변별 방법에 대해 찾아 볼 것이다.

『우리말 사전』에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각 단어의 형성에 관하여 알아볼 것이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뜻풀이와 예문을 바탕으로 각 단어별 사전 의미, 문형 정보에 대해 알아본다. 문형 정보와 연어 정보에 대해 사전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세종 말뭉치와 연세 말뭉치 용례 검색 시스템의 용례를 분석하여 알아본다.

세종 말뭉치에서 추출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에 관한 용례는 총 8,772건이며, 이 가운데 각 단어마다 ‘그만두다’ 735건, ‘그치다’ 1,244건, ‘끝나다’ 3,540건, ‘마치다’ 1,537건으로 나타났다.

연세 말뭉치에서 추출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에 관한 용례는 총 97,039건이며, 이 가운데 각 단어마다 ‘그만두다’ 9,437건, ‘그치다’ 19,064건, ‘끝나다’ 47,323건, ‘마치다’ 21,21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통해 기존 사전에 제시된 정보에서 얻을 수 없는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형 정보 및 어휘간 공기 정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법적 정보와 사전 의미

중국어 ‘結束’에 대응하는 한국어 유의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구분을 위하여 먼저 각 단어 형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단어 형성에 대해 알아볼 때, 그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동사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문법적 정보에 대해 알아본 뒤 각 단어의 사전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 외국어 어휘 학습에 있어서 모르는 어휘와 마주할 때 자주 사전을 사용하여 의미를 파악하곤 한

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사전을 중심으로 학습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사전 중 자주 참고되고, 대표성을 띄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을 선정하여, 사전에 나타나 있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2.1. 단어 형성²⁾

‘그치다’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그치다’로 나타나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마치다’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못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16세기부터 ‘못츠-’로 나타나는데, ‘못츠다>맛츠다>맞치다>마치다’의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그치다’와 ‘마치다’는 어떠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일어이다.

‘그만두다’는 19세기 문헌에서부터 ‘그만두다’로 나타나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그만두-’는 ‘그만’과 동사 ‘두-’가 결합한 합성어로 추정된다. ‘끝나다’는 18세기 문헌에서부터 ‘쫓나다’의 형태로 나타난다. ‘쫓나-’는 ‘末’를 의미하는 명사 ‘쫓’과 동사 ‘나-’가 결합한 것이다. 현대 국어 ‘끝나-’도 명사 ‘끝’과 동사 ‘나-’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끝나다’의 사동사인 ‘끝내다’는 19세기 문헌에서부터 ‘쫓내다’로 나타난다. ‘쫓내-’는 ‘末’를 의미하는 명사 ‘쫓’과 동사 ‘내-’가 결합한 것이다. 현대 국어 ‘끝내-’는 명사 ‘끝’과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동사 ‘내-’가 결합한 합성어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만두다’, ‘끝나다’, ‘끝내다’는 결합이 이루어진 합성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동사 분류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는 사전에서는 모두 동사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동사의 하위 분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자동사(自動詞)와 타동사(他動詞)로의 구분이다.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는 자동사이고,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타동사이다.

(2) 가. 회사를 그만둔다.

나. 일을 끝낸다

다. 방학이 끝난다.

(2가,나)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이다. 따라서 ‘그만두다’, ‘끝내다’는 타동사이다. (2다)에서 ‘끝나다’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로만 쓰일 수 있다.

김문오(1996: 4)에서는 의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접사 첨가 없이, 동일한 형태로 두루 쓰일 수 있는 동사를 ‘자/타동 양용동사(약칭: 양용동사)’라고 규정하였다.

2) 이 부분에 나온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단어 형성은 국립국어원 <우리말 사전> 역사 정보에 나타난 형태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형태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다.

(3) 가. 노래가 그친다.

나. 노래를 그친다.

다. 일이 마친다.

라. 일을 마친다.

(3)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명사(구) ‘노래’, ‘일’을 자동사문의 주어와 타동사문의 목적어로 취할 수 있으면서, ‘그치다’, ‘마치다’의 형태 변화 없이 자동사와 타동사로 겸하여 쓸 수 있다. 따라서 ‘그치다’와 ‘마치다’는 양용동사이다.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동사 분류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동사 분류

	자동사	타동사
그만두다		○
그치다	○	○
끝나다	○	
끝내다		○
마치다	○	○

2.3. 사전 의미 분석

『표준국어대사전』³⁾과 『연세한국어사전』⁴⁾에 제시되어 있는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정의는 <표3>과 같다.

<표3>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사전적 정의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그만두다	「1」 하던 일을 그치고 안 하다. 「2」 할 일이나 하려고 하던 일을 안 하다.	(하려고 하거나 하고 있는 일을) 중도에 그치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4) <연세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ysdic>

그치다	<p>「1」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p> <p>「2」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p>	<p>I (계속되던 일, 움직임, 현상 따위가) 계속되지 않다. 멈추다. 끝나다.</p> <p>II (움직임이나 일을) 계속하지 않다.</p> <p>III (더 진전이 없이 어떤 정도나 한계에) 머무르다.</p>
끝나다	<p>「1」 일이 다 이루어지다.</p> <p>「2」 시간이나 공간에서 이어져 있던 것이 다 되어 없어지다.</p> <p>「3」 본래의 상태가 결판이 나서 무너지거나 없어지다.</p>	<p>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이 다 되거나 이루어지다. 2. (일정 기간이) 다 되어 지나가다. 3. 하루 일을 다 마치다. 4. (일정한 거리의 끝에 다달아) 더 이상 이어지지 않다. 5.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다. 6. (얘기나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7.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p>II 어떤 것으로 끝이 마무리되다.</p>
끝내다	<p>「1」 일을 다 마무리하다. ‘끝나다’의 사동사.</p> <p>「2」 시간이나 공간에서 이어져 있던 것이 다 되어 없어지게 하다. ‘끝나다’의 사동사.</p>	<p>(어떤 일이나 상황, 상태를) 더 할 것 없이 마무리하다.</p>
마치다	<p>마치다²</p> <p>「1」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p> <p>「2」 사람이 생(生)을 더 누리지 못하고 끝내다.</p>	<p>마치다 2</p> <p>(하던 일이나 과정을) 끝내다.</p>

‘그만두다’의 사전적 정의는 해야 하는 일, 하려고 하던 일, 하고자 하는 일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중도에 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치다’의 사전적 정의는 지금까지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 현상 따위 등이 멈추거나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이나 움직임에 있어서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진전이 없이 어떤 상태나 정도, 한계에 머무르거나 멈추거나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끝나다’의 사전적 정의는 일이 다 되거나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이는 시간이나 공간에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일들이 다 되어 없어지거나 본래의 상태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일정한 기간이 다 되어 지나가거나, 하루 일 등이 다 마치거나, 일정한 거리의 마지막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계 등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이야기나 일들이 더 이상 필요없거나 희망이 없는 것 등을 의미한다.

‘끝내다’의 사전적 정의는 일을 다 마무리하는 것이며, 어떤 일이나 상황, 상태를 더 할 것 없이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앞에서 제시한 ‘끝나다’의 사동사에 해당된다. 이는 시간이나 공간에서 이어져 있던 것이 다 되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마치다’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람이 생(生)을 더 누리지 못하고 끝내거나, 하던 일이나 과정을 끝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일들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모두 다르며, 그에 따라 쓰임새도 다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크게 ‘중단’, ‘종결’, ‘중단이나 종결이 다 가능한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에서 ‘그만두다’는 ‘중도에 그치다’로 정의하고 있다.

(4) 가. 창에는 머리의 물기 말리는 것을 그만두고, 옷을 꺼내 입었다.

(『연세한국어사전』)

나. 책을 읽으려다가 그만두었다.

(『표준국어대사전』)

(4가)에서 ‘그만두고’는 머리를 말리다가 멈춘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머리 다 말리기 전에 ‘머리의 물기 말리’는 행동이 미리 ‘중단’ 된다. (4나)에서 ‘그만두었다’는 책을 읽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에 계획을 ‘중단’ 한다. 즉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않고 책을 읽는 행위를 계획한 것을 멈추는 것이다. 따라서 ‘그만두다’는 어떠한 종결 전에 ‘중단’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가. 여름이 끝나다.

나. 한 학기를 끝내다.

(『표준국어대사전』)

(5가)는 계절 여름이 마무리되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여름이라는 정해진 계절의 끝에 도달함을 말한다. (5나)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해당 학기의 끝까지 도달했을 때를 말한다.

(6) 이번 학기 마치고 군대 가라는 얘기야.

(『연세한국어사전』)

(6)은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면 군대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앞 단계(이번 학기)가 ‘종결’ 되면 다음 단계(군대)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나다’와 ‘끝내다’를 사전에서 정의할 때 ‘일의 끝맺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마무리되다, 마무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끝나다’와 ‘끝내다’는 ‘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끝나다’와 ‘끝내다’는 ‘종결’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다’를 정의할 때 ‘끝내다’와 ‘끝나다’의 표현으로 정의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마치다’도 마찬가지로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노래가 그치다.

(『표준국어대사전』)

(7)에서 노래가 끝까지 완전히 다 끝날 수도 있고, 노래가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에서 ‘그치다’를 정의할 때 ‘멈추다’, ‘머무르다’와 ‘끝나다’의 표현을 사용했다. ‘멈추다’와 ‘머무르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각각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을 그치게 하다’와 ‘도중에 멈추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곳에 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그치다’가 ‘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치다’를 정의할 때 ‘끝나다’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미루어 보아 ‘그치다’는 ‘끝나다’와 마찬가지로 ‘종결’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사전 의미 구분 ‘종결’, ‘중단’

	종결	중단
그만두다		○
끝나다	○	
끝내다	○	
마치다	○	
그치다	○	○

3.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형 정보

문형은 문장을 학습할 때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문형은 국어 교육이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 문형을 통한 학습이 아니라 어휘의 의미만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유의어 분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한국어 기본 문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먼저 문형의 개념 및 한국어 동사의 기본 문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어 동사의 기본 문형에 대해 알아본 뒤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제시된 문형과 사전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형 정보와 실현 양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사전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형 정보와 실현 양상은 세종 말뭉치와 연세 말뭉치 용례 검색 시스템의 용례를 분석하여 알아본다.

이러한 문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형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다섯 단어에 대해 연구한다.

3.1.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기존 사전 문형 정보

배해수(1977: 470)에서 문형은 한 언어의 모든 문장을 포용 가능하게 하는 집약인, 제한된 수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했다. 또한, 고영근·구본관(2018: 260)에서 기본문형(基本文型)은 구체적인 문장을 대표하는 골이라고 했다. 한국어의 기본 문형을 몇 개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뉜다.⁵⁾ 본고에서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학습에서 쉽게 오류를 범하는 ‘격조사’를 함께 교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신서인(2017)의 관점에 따라 ‘명사구 + 격조사 형식’으로 한국어 동사가 적용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따른 기본 문형은 (8)과 같다.

(8) 자동사의 기본문형

가. NP-이 V

가’. NP1-이 NP2-{에/으로/에서/에게/처럼/과/보다} V

가”. NP1-이 NP2-이 V

타동사의 기본문형

나. NP1-이 NP2-을 V

나’. NP1-이 NP2-을 NP3-{으로/처럼/과} V

나”. NP1-이 NP2-{에게/에/에서} NP3-을 V

본고는 신서인(2017) 동사 기본 문형에 따라 서술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어와 필수적인 관계에 있는 논항을 모두 포함하고 논항이 격조사와 결합한 형태로 이 다섯 단어의 문형을 살펴보려 한다.

‘그만두다’, ‘그치다’, ‘끝나다’, ‘끝내다’, ‘마치다’의 문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 제시된 내용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 내용은 중복을 막고자 『연세한국어사전』의 내용을 인용하였고,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두 사전 모두 명시한다.

5) 한국어의 기본 문형에 대한 앞선 연구는 최현배(1956), 고영근(1969), 정인승(1974)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서술어를 핵으로 한 주성분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 문형을 설정하는 유형이다.

고영근(1969: 29-33)의 4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무엇이 무엇이다. (노루는 산짐승이다.)

나. 무엇이 어떠한다. (달이 밝다.)

다. 무엇이 어떠한다. (별이 반짝인다.)

라. 무엇이 무엇을 어떠한다. (글을 읽는다.)

국립국어원(2005나: 54-55)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어의 기본문형은 문장성분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를 사용하여 다섯 가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주어+서술어 (꽃이 핀다.)

나. 주어+부사어+서술어 (영미가 의자에 앉았다.)

다. 주어+목적어+서술어 (영미는 준호를 사랑한다.)

라. 주어+보어+서술어 (준호는 어른이 되었다.)

마.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영미는 준호를 천재로 여긴다.)

3.1.1. 자동사 ‘끝나다’의 문형

기존의 사전에서 자동사 ‘끝나다’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문형 정보는 다음과 같다.

(9) 가. [1]이 끝나다

어느덧 1학기가 끝났다.

나. [1]이 [2]와 ([3]이) 끝나다

자, 김 선생, 이제 우리하고⁶⁾는 끝났소.

다. [1]이 [2]로 끝나다

번호가 1이나 2로 끝나는 모든 전화를 공짜로 거는 방법을 그가 설명해 주었다.

(『연세한국어사전』)

(9)에서는 자동사 ‘끝나다’가 주어만 가지는 경우와 주어와 부사어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 구별하였다. (9가)는 ‘끝나다’가 주어만 가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끝나다’는 ‘NP-이 V’ 문형에서 사용될 수 있다. (9나)에서 ‘NP2-하고=우리하고’는 대상을 나타내고, (9다)에서 ‘NP2-으로=1이나 2로’는 분류를 나타낸다. 따라서, ‘끝나다’는 NP1-이 NP2-과 V’와 ‘NP1-이 NP2-으로 V’ 문형에서 사용될 수 있다.

3.1.2. 타동사 ‘그만두다’, ‘끝내다’의 문형

‘그만두다’, ‘끝내다’에 대해 사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형 정보는 다음과 같다.

(10) [1]이 [2]를 그만두다

용득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건 결코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연세한국어사전』)

(11) [1]이 [2]를 끝내다

토요일 오후에 그 복잡한 가운데서 가까스로 수속을 끝내고 안과에 들어가 진찰을 받았다.

(『연세한국어사전』)

(10), (11)의 ‘그만두다’와 ‘끝내다’는 모두 주어와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이다. (10)에서 ‘용득이’가 ‘그만두다’라는 행위의 주체이고, ‘회사’는 ‘그만두다’의 대상이다. (11)에서는 주어가 실현되지 않고 ‘수속’은 ‘끝내다’의 대상이다. 따라서 ‘그만두다’와 ‘끝내다’는 ‘NP1-이 NP2-을 V’ 문형에서 사용될 수 있다.

3.1.3. 양용동사 ‘그치다’, ‘마치다’의 문형

‘그치다’에 대해 사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형 정보는 다음과 같다.

6) 본고에서는 격 조사 ‘-하고’는 ‘-과’에 통합된다.

(12) 가. [1]이 그치다

그 사이에 다행히 비는 그쳐 있었다.

나. [1]이 [2]에 그치다

현우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기에 그의 계획은 구상에 그치고 말았다.

다. [1]이 [2]를 그치다

임 씨는 쫓겨난 아이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연세한국어사전』)

『연세한국어사전』에서 ‘그치다’가 자동사로서 (12가)는 주어만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12나)는 주어와 부사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NP2-에=구상에’ 범위를 나타낸다. (12다)에서는 ‘그치다’가 타동사로서 주어와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제시하는 ‘그치다’의 기본 문형은 ‘NP-이 V’, ‘NP1-이 NP2-에 V’, ‘NP1-이 NP2-을 V’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치다’에 대하여 제시되어있는 정보는 『연세한국어사전』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NP2’와 결합하는 부사격 조사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그치다’에 대해 제시되어있는 예이다.

(13) 가. 【…에】 그치다

출석률이 절반 정도에 그쳤다.

나. 【…으로】 그치다

그는 자기의 경고와 위협이 단순히 말만으로 그치는 헛소리가 아님을 이번 사건으로 보여 주었다. <<홍성원, 육이오>>

(『표준국어대사전』)

(13가)와 (12나)는 ‘그치다’에 대한 기본 문형으로, 일반적으로 부사격 조사 ‘-에’가 동반한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13나)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가 아닌 부사격 조사 ‘-으로’가 동반되어 ‘NP2-으로=말만으로’는 수단을 나타내 『연세한국어사전』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그치다’는 ‘NP1-이 NP2-으로 V’ 문형에서도 쓸 수 있다.

다음으로 ‘마치다’에 대해 사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형 정보는 다음과 같다.

(14) 마치다² [1]이 [2]를 마치다

그녀는 욕실에서 옷을 입고 갈 채비를 다 마친 후에야 나왔다.

(『연세한국어사전』)

(14)는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마치다’가 타동사로서 주어와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15) 【(…을)】 마치다²

일이 마치면 식당으로 와라.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과 같이 ‘마치다’의 쓰임이 타동사인 경우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15)와 같은 ‘마치다’의 자동사로의 쓰임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치다’는 ‘NP-이 V’와 ‘NP1-이 NP2-을 V’ 문형에서 사용될 수 있다.

3.2. 말뭉치에 나타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형 정보와 실현 양상

다음으로 세종 말뭉치와 연세 말뭉치 용례 검색 시스템의 용례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형정보와 실현 양상을 알아본다.

(16) 가. 낙하산 인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겨레신문 칼럼(93), 한겨레신문사, 1993)

나. 그러자 그 사건이 이듬해 +[십]월에 끝나자, 나는 비로소 퇴원하였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걸어갈 길 : 나의 政治白書, 1950)

다. 그러나 나에게는 끝난 일이 아니었다.

(수필공월 93년 겨울호, 1990)

라. 내 목숨이 올바른 사람처럼 끝났으면!

(한국사특강, 1990)

(16가~라)의 ‘NP-에서=여기에서’는 추상적인 장소를 나타내고, ‘NP-에=이듬해 +[십]월에’는 시간을 나타내고, ‘NP-에게=나에게’는 대상을 나타내고, ‘NP-처럼=올바른 사람처럼’은 바람 투영을 나타내는 논항이지만, 통사적으로 수의적이므로 (16) 예문의 기본 문형은 모두 ‘NP-이 끝나다’이다. 따라서 기본 문형은 ‘NP-이 끝나다’에서 수의 성분 ‘NP-에서’, ‘NP-에’, ‘NP-에게’ 그리고 ‘NP-처럼’은 실현될 수 있다.

(17) 가. 문도식 씨가 보험회사를 정년으로 그만둔 날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식구들은 그를 대하는 자세를 제각기 궁리하고 마련해두고 있었다.

(최일남, 최일남 소설집(손꼽아 헤어보니 외), 교문문예신서, 1970)

나. 갓전 앞에서 물러난 혜관은 아까처럼 기웃거리기를 그만두고 성큼성큼 장터를 빠져 나간다.

(박경리, 토지5, 1990)

다. 재수를 하는 동안에는 연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덕선외, 기자들, 조선일보 93년 인터뷰기사, 조선일보사, 1993)

라. 그는 오학년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일을 익히기 시작했다.

(태백산맥 3, 1980)

(17가)의 ‘NP-으로=정년으로’는 시간을 나타내고, (17나)의 ‘NP-처럼=아까처럼’은 행동 양식을 나타내고, (17다)의 ‘NP-에=재수를 하는 동안에’는 시간 범위를 나타내고, (17라)의 ‘NP-에서=오학년에서’는 시기를 나타내지만 수의 성분이므로 (17) 예문의 기본 문형은 모두 ‘NP1-이 NP2-을 그만두다’이며 수의적 성분 ‘NP-으로’, ‘NP-처럼’, ‘NP-에’, ‘NP-에서’는 기본 문형 ‘NP1-이 NP2-을 그만두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18) 가. 그 이전에는 저의 시집제목이 네 자 이내였는데, 이 시집만은 제목을 명사로 끝내지 않고 풀어서 쓴 것입니다.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2, 고려원, 1991)

나. 형과 이야기를 끝내고 안방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고호/박영준소설집, 1960)

다. 농림수산부로부터 18만 2천 8백 60kg을 배정받아 일선 동사무소를 통해 영세민에게 배정을 끝냈다.

(無次元 近處/現代文學 四月號, 1970)

라. 인민군은 날이 밝기 전에 예정된 일을 끝내기 위하여 쉬어빠진 목소리를 짜내며...

(시장과 전장, 1960)

마. 인근 음식점에서 간단히 식사를 끝내고 와서는 암실에 틀어박혀서 어제 고궁에서 찍은 사진들을 인화해 보았다.

(제2회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1970)

바. 그는 두 꼭지의 기사를 번개처럼 끝냈다.

(거미눈, 1990)

(18가)의 ‘NP3-으로=명사로’는 수단을 나타내며 필수 부사어이므로 ‘끝내다’는 ‘NP1-이 NP2-을 NP3-으로 V’ 문형에서 사용될 수 있다.

(18나)의 ‘NP-과=형과’는 동반주가 나타내고, (18다)의 ‘NP-에게=영세민에게’는 수혜주를 요구하고, (18라)의 ‘NP-에=인민군은 날이 밝기 전에’는 시간을 나타낸다. (18마)에서 ‘NP-에서=인근 음식점에서’는 장소를 나타낸다. (18바)에서 ‘NP-처럼=번개처럼’은 행동 모양을 나타내지만 모두 수의적 성분이므로 (18) 예문의 기본 문형은 모두 ‘NP1-이 NP2-을 끝내다’이며 수의적 성분 ‘NP-과’, ‘NP-에게’, ‘NP-에’, ‘NP-에서’, ‘NP-처럼’은 기본 문형 ‘NP1-이 NP2-을 끝내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19) 가. 만세 소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중등 국어 1, 1950)

나. 그 혜택이 그 한 사람에게만 그치니까.

(회색인, 1980)

다. 어젯밤 늦게까지 휘몰아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그치고 새아침이 밝아 있었다.

(여자는 한번으로 죽지 않는다, 1980)

라. 이들은 시민으로서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친다.

(가족과 사회, 1970)

마. 유용한 편지를 무용에 그치지 말도록 미리부터 세심 주의를 할 것이다.

(서간문전서/생활총서4, 1950)

바. 그러나 그들로서는 거기에서 말을 그칠 수는 없었다.

(고래 뱃속으로, 1980)

(19가~다)에서 ‘그치다’는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 자동사로 쓰였고, (19라~바)에서는 타동사로 쓰였다. (19가~다)에서는 각각 ‘NP-에서=우리가 있는 곳에서’ 장소를 나타내고, ‘NP-에게=그 한 사람에게만’은 대상을 나타내고, ‘NP-처럼=거짓말처럼’은 행동 방식을 나타내지만

모두 수의적 성분이므로 (19가~다) 예문의 기본 문형은 모두 ‘NP-이 그치다’이며 수의적 성분 ‘NP-에서’, ‘NP-에게’, ‘NP-처럼’은 기본 문형 ‘NP-이 그치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19라)에서는 ‘NP3-으로=수행하는 것으로’ 상태를 나타내고, (19마)는 ‘NP2-에=무용에’는 도달점을 나타내며 필수 성분이므로 ‘그치다’는 ‘NP1-이 NP2-을 NP3-으로 V’, ‘NP1-이 NP2-에 NP3-을 V’ 문형에서 사용될 수 있다.

(19바)에서 ‘NP-에서=거기에서’는 범위를 나타내지만 수의적 성분이므로 (19바) 예문의 기본 문형은 ‘NP-이 NP2-을 그치다’이며 수의적 성분 ‘NP-에서’는 기본 문형 ‘NP-이 NP2-을 그치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20) 가. 아홉 시 뉴스 여기서7) 마치겠습니다.

(김종진, 황수경, 대화자, KBS 9시 뉴스 98-09-22, 전자전사자료, 1998)

나. 고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소위가 되는가 했더니 바로 입관됐으니...

(이계진,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도서출판 우석, 1991)

다. 미경 역시 다른 형제들처럼 중학교를 마치고 도회지로 나와 공장에 취직해야 했다.

(안재성, 어느 화가의 승천, 새길, 1992)

라. 박 경감과 통화를 마친 후 윤 형사는 다시 다른 데로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 희망을 훔친 남자, 1990)

마. 그러면 내가 소화를 단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해 볼까요?

(은하천사와 7일간의 사랑, 1990)

바. 9시 뉴스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마치고, 지금 나는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신은경, 9시 뉴스를 기다리며, 김영사, 1992)

(20가) ‘아홉 시 뉴스’를 격조사 없이 목적어로 볼 수도 있고 주어로 볼 수도 있다. ‘아홉 시 뉴스’가 목적어로 실현되는 경우 ‘아홉 시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라는 문장은 주어가 실현되지 않고 ‘NP2-을=아홉 시 뉴스’는 대상이 목적어로 실현되고 ‘NP-에서=여기서’는 추상적인 장소를 나타낸다. 한편, ‘아홉 시 뉴스’가 주어로 실현되는 경우 ‘아홉 시 뉴스(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라는 문장은 ‘NP-이=아홉 시 뉴스’가 주어이고 ‘NP-에서=여기서’는 도달점을 나타낸다. ‘NP-에서=여기서’는 수의적 성분이므로 (20가)의 기본 문형은 ‘NP1-이 마 치다’와 ‘NP1-이 NP2-을 마 치다’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NP-에서’는 기본 문형 ‘NP1-이 마 치다’와 기본 문형 ‘NP1-이 NP2-을 마 치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20나~바)의 ‘마치다’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로 사용한다. (20나)에서 ‘NP으로=성공 적으로’는 결과를 나타내고, (20다)에서 ‘NP-처럼=형제들처럼’은 행동 모양을 나타내고, (20 라)에서 ‘NP-과=박 경감과’는 동반주가 나타내고, (20마) ‘NP-에=단시간에’는 범위를 나타내 고, (20바) ‘NP-에게=9시 뉴스 시청자들에게’는 수혜주를 요구하지만 모두 수의적 성분이므로 (20나~바) 예문의 기본 문형은 모두 ‘NP1-이 NP2-을 마 치다’이며 수의적 성분 ‘NP-으로’, ‘NP-처럼’, ‘NP-과’, ‘NP-에’, ‘NP-에게’는 기본 문형 ‘NP1-이 NP2-을 마 치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기본 문형과 실현 양상을 정리하면 <표5>와 같 다.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서¹⁵ 「조사」 ‘에서’의 준말.

<표5>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기본 문형과 실현 양상

단어	분류	문형	실현 가능한 수의적 성분
끝나다	자동사	NP-이 끝나다 NP1-이 NP2-{으로/과} 끝나다	NP-{에/에서/에게/처럼}
끝내다	타동사	NP1-이 NP2-을 끝내다 NP1-이 NP2-을 NP3-으로 끝내다	NP-{에/에서/에게/처럼/과}
그만두다	타동사	NP1-이 NP2-을 그만두다	NP-{으로/에/에서/처럼}
그치다	자동사	NP-이 그치다 NP1-이 NP2-{에/으로} 그치다	NP-{에서/에게/처럼}
	타동사	NP1-이 NP2-을 그치다 NP1-이 NP2-을 NP3-으로 그치다 NP1-이 NP2-에 NP3-을 그치다	NP-에서
마치다	자동사	NP-이 마치다	NP-에서
	타동사	NP1-이 NP2-을 마치다	NP-{으로/에/에서/에게/처럼/과}

<표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만두다’와 ‘그치다’는 ‘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달리 ‘그만두다’나 ‘그치다’가 ‘서술어’로 사용된 문장에서 ‘NP-과’라는 부사어가 존재하지 않는다.⁸⁾

또한, ‘그만두다’는 ‘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달리 ‘그만두다’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문장에서 ‘NP-에게’라는 부사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8) 가. 사무직은 미혼이 92.3%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직종에 취직한 여성들은 결혼과 더불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과 사회, 1970)

가’. *사무직은 미혼이 92.3%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직종에 취직한 여성들은 결혼과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미혼 직장 여성들의 74.9%가 결혼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96-09 생활/여성, 1990)

나’. *미혼 직장 여성들의 74.9%가 결혼과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나)에서 ‘결혼과’의 후행 요소 ‘더불어’, ‘함께’를 제외하면 문장이 어색해지거나 비문이 되므로 ‘NP-과 함께’, ‘NP-과 더불어’와 같이 하나의 부사절로 보는 것 더 나을 듯하다. 따라서, ‘그만두다’가 ‘서술어’로 사용된 문장에서 ‘NP-과 함께/더불어’라는 부사절이 실현될 수 있다.

3.3.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부정문 문형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가 부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부정법에 대하여 연세 말뭉치를 통해 조사해 보고 다음 <표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6>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부정 표현 사용 빈도

어휘	부정 표현	빈도
그만두다	안	6회
	-지 않다 ⁹⁾	123회
	못	3회
	-지 못하다	53회
	-지 말다	5회
그치다	안	20회
	-지 않다	3,512회
	못	7회
	-지 못하다	56회
	-지 말다	95회
끝나다	안	104회
	-지 않다	1,945회
	못	0
	-지 못하다	18회
	-지 말다	14회
끝내다	안	8회
	-지 않다	144회
	못	9회
	-지 못하다	156회
	-지 말다	15회
마치다	안	8회
	-지 않다	58회
	못	33회
	-지 못하다	188회
	-지 말다	0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 모두 긴 부정 표현 ‘-지 않다’나 ‘-지 못하다’와 더 자주 공기한다. 둘째, ‘못 끝나-’, ‘마치지 말-’과 같은 용례는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분한 내용을 세종 말뭉치와 연세 말뭉치 용례 검색 시스템의 용례를 예로 들어 설명할 것이다.

먼저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 모두 긴 부정 표현 ‘-지 않다’나 ‘-지 못하다’와 더 자주 공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동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두다’, ‘그치다’, ‘끝나

9) ‘-지 아니하다/ -지 않다’가 주로 ‘-지 않다’로 쓰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지 아니하다’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지 않다’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

다'가 긴 부정 표현 '-지 않다'와 공기하는 빈도가 각각 123회, 3512회, 1945회로 다른 부정 표현에 비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익섭·채완(1999: 360)에서 '안' 부정은 주체가 행위의 의지를 가지지 않는 의지 부정이나 주체의 의지와는 무관한 중립 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힌다.

(21) 가, 그러나 그도 교수직을 그만두지는 않는다.

(한겨레21, 1990)

나. 살아생전 아버지 말만 나오면 어머니 입에서 온갖 험담이 그치지 않았다.

(김원일, 삶이 곁 살림의 질, 세계사, 1993)

다. 비는 잠시도 그치지 않고 퍼붓기만 하였다.

(洪水前後/신가정 21, 1930)

라.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고맙다 논리야, 1990)

(21가)에서 단순히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은 중립적으로 전해 주는 의미거나,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만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1나)에서 행위 주체가 '험담'을 그치기를 원하지 않아서, '험담'하기를 원해서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1다,라)에서 보듯이 주체가 무정물이어서 객관적 상황이므로 주체의 의지와 무관한 중립 부정이다.

'마치다'는 '-지 못하다'의 부정 표현과 188회로 가장 많이 공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다섯 단어의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빈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이익섭·채완(1999: 360)에서 '못' 부정은 주체가 행위의 의지를 가졌으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그 행위를 실현할 수 없는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힌다.

(22) 엄마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은방울꽃, 1960)

(22)에서 '말'을 하는 행위주 '엄마'는 '말'을 끝(그 말을 통해 청자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다 표현될 때)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를 했으나 저지된다는 상황이다.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다'가 능력 부정 '못' 부정 표현과 공기 빈도가 다른 부정 표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본고 4장에서 나오는 결론, 타동사 '마치다'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더라도 기존 목표나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반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끝내다'는 '-지 않다'와 '-지 못하다'의 부정 표현과 각각 144회, 156회로 다른 동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두 부정 표현과의 공기 빈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가. 웃음을 끝내지 않으면서 그는 참으로 반가운 듯 큰 소리로 말한다.

(풀잎여자 1, 1990)

나. 그렇기에 아직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전설의 고향, 1990)

(23가)에서 단순히 '웃음'을 끝내지 않은 중립적으로 전해 주는 의미이거나, 행위 주체가 끝

내기를 원하지 않아서 끝내지 않다는 의미이다. (23나)에서 ‘공사’를 하는 행위주가 ‘공사를 끝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떠한 제약으로 인해서 의도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끝내다’는 의지 부정, 중립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표현 ‘-지 않다’와,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표현 ‘-지 못하다’와 모두 공기할 수 있고, 두 부정 표현과의 빈도가 큰 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표6>에서 나타난 것처럼 연세 말뭉치에서 ‘마치지 말-’과 같은 표현은 하나도 없다. 구분관 외(2015: 360)는 ‘-지 말다’ 부정은 주로 명령문과 청유문 부정, ‘희망’의 뜻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내포절 속¹⁰⁾에서 쓰인다는 것을 밝힌다. 연세 말뭉치에서 ‘마치지 말-’과 같은 용례는 하나도 없지만 (18)과 같이 실제로 일상생활에 종종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 절대로 화난 상태로 하루를 마치지 마세요.¹¹⁾

(가톨릭신문, 2014-12-25 [제2924호, 8면])

연세 말뭉치에서 ‘못 끝나-’와 같은 표현은 하나도 없다. 손남익(1996: 62)에서 부정부사 ‘못’은 능력의 부정이나 의지의 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힌다. 이와 같은 점은 본고 4장에서 나오는 결론, ‘끝나다’의 공기 주어는 무정물이나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점을 반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끝나다’는 능력이나 의지가 필요한 ‘못’ 부정부사와 공기하지 않는다.

4.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어 정보 및 부사와의 공기

연어는 어휘 요소 상호 간 또는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 간의 긴밀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연어핵)가 되는 어휘요소가 선택의 대상이 되는 어휘 요소나 문법요소(연어변)를 선호하여 선택한다.¹²⁾

실제로 통사론에서는 ‘비가 그치다’는 가능하지만, ‘비가 끝나다’는 불가능하거나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언어를 만들거나 해석할 때, 어휘 간의 보다 구체적인 결합 관계가 명시되는 계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문법 범주나 선택 제약만으로는 언어 결합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금현(2004나)에서 학습 단계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결합 구성의 관계를 통한 유의어 대응쌍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연어 정보는 동사 유의어 변별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임근석(2002: 2)에서 연어의 중심 단위가 2개의 어휘소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10) 가. 밥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준국어대사전』)

가’. [[밥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에서 목술 관계가 성립된 ‘밥을 남기지 마시-’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형성된 명사절이 서술어인 ‘바라다’의 내포절로 나타난다.

즉, ‘-지 말기를 {바란다, 원한다, 희망한다, 기대한다}’와 같은 쓰임으로 나타난다.

11) (24)는 ‘마치지 말-’ 명령문에 사용하는 예문이다.

12) 임근석(2010: 62)을 참조할 것.

단위들의 통사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조사나 어미의 문법소가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문금현(2002: 6)에서는 어휘적 연어의 유형을 세분할 경우 의미 역할을 명확하게 포착하기가 어려워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통사적인 기준에 의해 삼분하였다.¹³⁾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구성 요소의 비중을 판단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사적인 기준에 의해 세분하는 것이 오히려 외국인 학습자들의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본고에서 통사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사 ‘끝나다’의 주술 관계 연어, 타동사 ‘그만두다’, ‘끝내다’의 목적 관계 연어, 양용동사 ‘그치다’, ‘마치다’의 주술 관계 연어와 목적 관계 연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또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부사의 공기 관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른 분류에 맞추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가 자주 공기하는 어휘들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4.1.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어 정보

4.1.1. 자동사 ‘끝나다’의 주술 관계 연어

‘그만두다’, ‘그치다’, ‘끝나다’, ‘끝내다’, ‘마치다’ 다섯 단어 중에서 ‘끝나다’와 공기하는 명사가 가장 많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2」에 따르면 다섯 단어 중 ‘끝나다’의 실생활 사용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세종 말뭉치에서 ‘끝나다’의 주술 관계 연어를 공기 빈도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7>과 같다.

<표7> 세종 말뭉치에서 ‘끝나다’의 공기 명사

주술 관계	전쟁, 말(말씀), 일, 이야기(얘기), 선거, 수업, 영화, 작업, 식사, 방송, 노래, 경기, 임기, 회의, 단화, 시험, 시대, 기간, 공연, 조사, 강의, 뉴스, 공사, 대화, 기간, 장례식(장례), (이) 것, 연설, 세계대전, 장마, 준비, 발표, 촬영, 예배, 총선, 인사, 재판, 추수(추수기), 설명, 전시회, 학교, 방학, 길, 대전, 훈련, 계약, 토론, 집회, 중계, 잔치, 인터뷰, 행사, 전투, 드라마, 시효, 투표, 선정, 수사, 싸움, 음악, 여행, 연습, 올림픽, 면담, 학기, 교육, 처리, 생리, 월경, 소리, 쇼, 연구, 연극, 수술, 예약, 세기, 세상, 소개, 모임, 근무, 논쟁, 과정, 검토, 화(回), 세트, 보고, 문제, 개발, 전화, 통화, 정리, 차례, 청소, 휴가, 축제, 음악회, 여름, 사랑, 놀이, 계획, 공부, 배달, 게임, 결혼식, (한) 가지, 공연, 막(幕)
-------	--

13) 문금현(2002: 6)

①주술관계 연어 예: 구역질이 나다/ 군침이 돌다/나이가 들다

②목적관계 연어 예: 김을 매다/ 먹을 감다/몸부림을 치다

③수식관계 연어

1. {체언+관형격조사+체언}형 예: 간발의 차/우연의 일치

2. {부사+용언}형 예: 깜빡 잊다/깜짝 놀라다

3. {부사어+용언}형 예: 감기에 걸리다/충격에서 벗어나다

4. {용언+관형형어미+체언}형 예: 감칠 맛/양성한 식욕

<표7>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 빈도가 높은 명사에는 ‘전쟁, 말(말씀), 일, 이야기(얘기), 선거, 수업, 영화, 작업, 식사, 방송, 노래, 경기, 임기, 회의, 단화, 시험...’ 등이 있다.

(25) 가.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나는 신애를 데리고 귀국해 버렸다.

(송하춘, 하백의 딸들, 문학과 지성사, 1994)

나. 남자의 말이 끝나자 수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가서 식사값을 지불했다.

(유기성, 아름다움 그 시작, 삼신각, 1994)

다. 어느 정당이 이기든 선거가 끝나야 대외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경향신문사 편집부, 경향신문 96-01 해설, 경향신문사, 1996)

라. 어제 생리가 끝났거든요.

(구효서, 낮선여름)

마. 월경이 끝나고 1주일 후가 적절한 진단 시기라고 한다.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과학(93), 조선일보사, 1993)

바. 이 여름이 끝나면 서늘해지겠지?

(창조적인 글쓰기, 1990)

(25)의 예문에서 ‘끝나다’와 공기하는 명사는 ‘전쟁’, ‘말’, ‘선거’, ‘생리’, ‘월경’, ‘여름’이다. (25가)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는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변할 수 없고, 어느 순간에 승패가 분명히 나타나거나, 더 이상 ‘전쟁’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저절로 끝난다. (25나) ‘남자의 말’은 누군가의 의지와 관계없이 ‘남자’가 말하고자 하는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였을 때 ‘말’이 저절로 끝난다. (25다) ‘선거’는 선거 기간이라는 정해진 기준에 도달되면 누군가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끝난다. (25라,마)에서 ‘생리’와 ‘월경’ 또한 누군가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리 기간이라는 기준에 도달하면 저절로 끝난다. 이와 같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 단어의 연어 정보 정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생리’, ‘월경’처럼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인간 의지의 개입을 통해 ‘종결’하기 어려운 유정물의 생리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와 공기 빈도가 높은 단어는 ‘끝나다’뿐이라는 것이다.¹⁴⁾ 또한, (25바)의 ‘여름’과 같이 어떠한 인위 의지를 통해 변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이 바뀔 때도 ‘끝나다’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끝나다’와 공기하는 주어는 주로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고 어떤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면 저절로 종결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1.2. 타동사 ‘그만두다’, ‘끝내다’의 목술 관계 연어

세종 말뭉치에서 ‘그만두다’의 목술 관계 연어를 공기 빈도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8>과 같다.

<표8> 세종 말뭉치에서 ‘그만두다’의 공기 명사

목술 관계	학교, 직장, 회사, 일, 신문사, (교사) 직(職), 것, 운동, 방송, 노릇, 짓, 공부, 교직, 교회, 벼슬, 비서실, 싸움, 감독, 공사, 공장, 배우, 기사, 여행
-------	--

14) 실제로 자동사 ‘그치다’를 사용하고 ‘생리가/월경이 그치다’도 가능하지만 공기 빈도가 낮고 ‘끝나다’의 표현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에 볼 수 있듯이 ‘그만두다’와 공기 빈도가 높은 명사에는 ‘학교, 직장, 회사, 일, 신문사, (교사) 직(職)...’ 등이 있다. 따라서 ‘그만두다’의 목적어는 주로 자격이나 직업, 직책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6) 가. 나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

(박일문, 살아남은자의 슬픔, 민음사, 1992)

나. 나의 경우 86년에야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작가의 길을 선택했다.

(김원일, 삶의 결 살림의 질, 세계사, 1993)

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이덕선외, 기자들, 조선일보 93년 인터뷰기사, 조선일보사, 1993)

(26가)에서 ‘나는 학교를 그만두다’를 보면, 주어 ‘나’가 학생이라면 ‘나’가 목적어인 ‘학교’를 다니기를 중단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는 자격이 없는 것이고, 주어 ‘나’가 선생님이라면 ‘나’가 목적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고 더 이상 ‘학교’의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없어진 것이다. (26나)는 ‘직장’을 다니다가 자기 의지대로 중단하는 것이고, (26다)는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 의지대로 중단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어 정보 정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 목표나 기준이 도달하기 전에 자격이나 직업, 직책을 중단하는 상황에 ‘그만두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끝내다’의 목술 관계 연어를 공기 빈도 순서대로 표로 정리하면 <표9>와 같다.

<표9> 세종 말뭉치에서 ‘끝내다’의 공기 명사

목술 관계	말, 일, 식사, 이야기(얘기), 통화, 준비, 회의, 작업, 전쟁, 조사, 강의, 생활, 저녁, 촬영, 것, 활동, 뉴스, 재판, 협의, 훈련, 회견, 회담, 진술, 여행, 인사, 인터뷰, 임기, 설명, 손질, 수사, 악수, 방문, 개발, 계산, 공사, 과정, 공부, 모임, 대답, 전투, 점심, 검증, 배달, 사랑, 샤워, 수업, 수술, 작품, 프로그램, 작품, 관계, 감정, 갈등, 노래, 혼례, 발표, 방송, 보고, 설거지, 세수, 쇼, 숙제, 주문
-------	---

<표9>에서 볼 수 있듯이 ‘끝내다’와 공기 빈도가 높은 명사에는 ‘말, 일, 식사, 이야기(얘기), 통화, 준비, 회의, 작업, 전쟁, 조사, 강의, 생활...’ 등이 있다.

(27) 가. 그렇게 말을 끝내자마자 나는 번개처럼 세 사내를 차례로 걸어챘다.

(인간시장 제1부(10)완결, 1990)

나.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나오다가 차지철 경호실장과 부딪쳤다.

(월간조선 156호, 1990)

다. 벤은 차츰 에스더에게 호감을 표하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루실은 벤에게 관계를 끝낼 것을 종용한다.

(씨네21 167호, 한겨레신문사, 1998)

(27가)에서는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말’을 하는 화자가 하고자 하는 목표나 기준 끝에 도달하였을 때 끝낼 수 있고, 둘째, 화자 마음대로 목표나 기준을 맞추지 않고 말

을 종결할 수 있다. (27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정해진 식사 시간이 다 지나가거나, ‘식사하는 양’이라는 정해진 기준을 다 먹어서 식사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끝낼 수 있고 둘째, 식사를 하는 주체가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식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끝낼 수 있다.

또한 ‘끝내다’의 사용에 있어서 다른 단어들과 구분된 것은 (27다)에서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만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루실’의 의지를 보일 때는 ‘끝내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끝내다’의 목적어는 주로 인간의 의지대로 정해진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는지와 상관없이 종결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1.3. 양용동사 ‘그치다’, ‘마치다’의 주술 관계 연어 및 목술 관계 연어

세종 말뭉치에서 양용동사 ‘그치다’의 주술 관계 연어 및 목술 관계 연어 <표10>과 같다.

<표10> 세종 말뭉치에서 ‘그치다’의 공기 명사

주술 관계	비, 소리, 눈, 싸움, 바람, 전쟁, 웃음, 말, 일, 시위, 통곡, 이슬비, 잔소리, 말소리, 종소리, 활동, 음곡, 음악, 행진곡, 분쟁, 것, 위기감, 조바심, 연주회
목술 관계	울음, 말, 웃음, 노래, 싸움, 험박, 것, 이야기(얘기), 울음소리, 먹이기, 나오기, 억압, 기침, 날갯짓, 투덜대기, 다툼, 자랑, (동맹을)맺기, 도망, 지식, 눈물, 감탄, 잘못, 존재하기.(빌려) 오기, 목마름

‘그치다’의 공기 주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상과 관련된 단어이다. 이와 같은 단어는 <표10>에서 ‘비, 눈, 바람, 이슬비’가 있다.

(28) 가. 비가 그쳤으니 어서 출선을 서두르게.

(김주영, 객주5, 창작과 비평사, 1996)

나. 방서방은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고 이 눈이 그치고는 무서운 추위가 오려니 생각했다.

(이태준, 해방전후, 창작과 비평사, 1992)

다. 세찬 바람이 그쳤다.

(주간경향 편집부, 주간경향, 경향신문사, 1994)

(28)에서 ‘그치다’의 주어 ‘비’, ‘눈’, ‘바람’은 무정물로 기상과 관련된 단어이며 언제 멈추는지, 언제 시작될지 등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이 없다.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어 정보 정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준이 없는 기상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그치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소리 및 소리 나는 행위와 관련된 단어이다. <표10>에 이와 같은 단어는 ‘소리, 싸움, 전쟁, 웃음, 말, 시위, 잔소리, 말소리, 종소리, 음곡, 음악, 행진곡, 분쟁, 연주회’가 있다.

(29) 가. 이 밤부터는 바람까지 일어서 휙휙 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강경애, 인간문제, 창작과 비평사, 1992)

나. 한편 도이칠란트는 종교 문제로 싸움이 그치지 않은데다가 프랑스, 영국 등의 간섭으로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2, 고려원미디어, 1995)

(29)에서 ‘그치다’의 주어 ‘소리’와 ‘싸움’은 기준이 없는 추상적인 단어이다.

셋째, 유정물의 심리와 관련된 단어이다. 이와 같은 단어는 <표10>에서 ‘위기감, 조바심’이 있다.

(30) 가. 서울시 간부들이 구속됐다고 하니까 ‘어지간히 재수 없는 사람이군’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회에서 위기감이 그칠 리 없겠지요.

(김재춘외, 기자들, 동아일보 90년 좌담기사, 동아일보사, 1990)

나. 적용되는 증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연속된 긴장으로 가슴 속에 화기와 조바심이 그칠 사이 없을 때....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생활(93), 조선일보사, 1993)

(30)에서 ‘그치다’의 주어 ‘위기감’과 ‘조바심’은 기준이 없는 추상적인 단어이다.

다음으로, ‘그치다’의 공기 목적어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치다’의 공기 주어와 마찬가지로 소리 및 소리 나는 행위와 관련된 단어가 있다. 이와 같은 단어는 <표10>에서 ‘울음, 말, 웃음, 노래, 싸움, 이야기(얘기), 울음소리, 투덜대기, 다툼’이 있다.

(31) 가. 강아지똥은 실컷 올다가 골목길 담벽에 노랗게 햇빛이 비칠 때야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권정생, 손춘익, 이영호, 이현주, 정휘창, 풀배가 보고 온 달나라, 창작과 비평사, 1977)

나. 그가 말을 그치면 공기의 흐름도 따라 멈추는 듯했습니다.

(구효서, 낫선여름, 중앙M&B, 1994)

다. 그 여자는 이제 웃음을 그치고 입을 꼭 다물고 그 커다란 눈으로 앞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고 코 끝에 땀이 맺혀 있었다.

(김승옥, 무진기행, 심지, 1987)

(31)에서 ‘그치다’의 목적어 ‘울음’, ‘말’과 ‘웃음’은 기준이 없는 추상적인 단어이다.

둘째, 유정물의 지속적인 생리 현상이다. 이와 같은 단어는 <표10>에서 ‘기침, 목마름’이 있다.

(32) 가. 사람의 정수를 이롭게 하며 번열(煩熱)과 목마름을 그치게 한다는 없지 못할 좋은 약재로 된다.

(구인환 편, 한국현대수필을 찾아서, 한샘출판사, 1984)

나. 조한필은 아직까지도 기침을 그치지 못하고 콜록이고 있는 환자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그렇게 말하였다.

(현격준 외 5인, 바다가 부르는 소리, 한국경제신문사, 1995)

(32)에서 ‘그치다’의 목적어 ‘목마름’과 ‘기침’은 기준이 없는 유정물의 생리현상으로 추상적인 단어이다. (32가)에서 ‘목마름’은 인간의 의지 개입을 통해 조절할 수 있지만, (32나)에서 ‘기침’은 의지가 개입하더라도 조절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셋째, 명사형 전성 어미 ‘-기’과 결합한 명사형이다. 이와 같은 단어는 <표10>에서 ‘먹이기, 나오기, 투덜대기, (동맹을) 맺기, 존재하기, (빌려) 오기’가 있다.

(33) 가. 흔히 어머니들은 무릎에 어린아이를 올려 놓고 쌀밥과 그 밖의 음식을 마구 먹이고 충분히 배가 부른가 어떤가 보려고 때때로 숟가락 자루로 배를 때려 보고 생리적으로 그 이상 부풀릴 수 없게 되어야만 먹이기를 그친다.

(손일락, 식도락 보헤미안, 새길, 1995)

나. 원저는 한 권인데, 해설이다 연구다 하는 책은 부지기수로 나오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연세교양교육위편, 대학의 뜻, 연세대학교 출판, 1979)

(33)에서 ‘먹이기’와 ‘나오기’ 또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행동이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 ‘그치다’의 공기 명사 대부분이 목표나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단어이다. 다음으로, 세종 말뭉치에서 양용동사 ‘마치다’의 주술 관계 연어 및 목술 관계 연어 살펴본다.

<표11> 세종 말뭉치에서 ‘마치다’의 공기 명사

주술 관계	세상
목술 관계	말(말씀), 학교, 일생, 식사, 과정, 등록, 일, 뉴스, 회담, 훈련, 수업, 준비, 방문, 조사, 일정, 회의, 이야기(얘기), 공부, 임기, 여행, 촬영, 대학, 생(生), 작업, 세수, 숙제, 근무, 설거지, 방송, 학기, 공연, 연수, 행사, 인사, 샤워, 생활, 저녁, 교육, 대화, 등기, 점심, 노래, 시간, 글, 형기, 신고, 휴가, 기도, 검토, 연습, 장사, 투표, 협의, 계산, 소계, 세상, 면접, 방제, 강연, 수속, 한평생, 세면, 대학원, 야학, 석사, 지원, 연설, 보고회, 콘서트, 조회, 과제, 활동, 모임, 녹화, 연재, 전화, 계약, 상담, 청소, 점호, 삶, 대회, 주무, 청소

<표11>에 볼 수 있듯이 세종 말뭉치에서 ‘마치다’의 공기 주어는 드물며 ‘세상이 마치다’의 쓰임 밖에 없지만 연세 말뭉치에서 ‘마치다’의 공기 주어를 다음 <표1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찾을 수 있었다.

<표12> 연세 말뭉치에서 ‘마치다’의 공기 주어

주술 관계	말, 저녁, 기한, 세상, 식사, 학교, 운동회, 결혼식, 역사, 식사, 조사

<표12>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다’와 공기하는 주어에는 ‘말, 저녁, 기한, 세상, 식사...’ 등이 있다.

(34) 가. 정순의 말이 마치기 전에 경애는 두 팔로 정순을 덤석 안고 그 얼굴에 자기 뺨을 대었다.

(짚레꽃, 1930)

가’. 정순의 말이 끝나기 전에 경애는 두 팔로 정순을 덤석 안고 그 얼굴에 자기 뺨을 대었다.

나. 마침 학교가 마칠 무렵이어서 책방 안에는 많은 학생들이 붐비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영화가 끼여 있었던 것이다.

(작은 어릿광대의 꿈, 1980)

나’. 마침 학교가 끝날 무렵이어서 책방 안에는 많은 학생들이 붐비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영화가 끼여 있었던 것이다.

(34가,나)에서 ‘마치다’와 공기하는 명사는 ‘말’과 ‘학교’이다. (34가)에서 ‘말’이 언제 종결하는지는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변할 수 없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였을 때 ‘말’이 저절로 마친다. (34나)에서 ‘학교’는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변할 수 없고 정해진 그 시간이 됐을 때 ‘학교가 마치다’로 사용한다. 자동사 마치다와 ‘끝나다’는 의미와 그 쓰임에 있어서 가장 유사함을 보였다. (34가)에서 ‘말이 마치다’는 (34가’) ‘말이 끝나다’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고 (34나)에서 ‘학교가 마치다’는 (34나’) ‘학교가 끝나다’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 ‘마치다’와 공기하는 주어는 ‘끝나다’의 공기 주어와 유사하다. 주로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고 어떤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면 저절로 종결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마치다’는 타동사로 주로 사용되며, 의미상 자동사로 쓰여야 될 경우 주로 ‘끝나다’로 사용한다.

‘마치다’와 공기하는 목적어에는 ‘말(말씀), 학교, 일생, 식사, 과정, 등록, 일, 뉴스, 회담, 훈련, 수업, 준비, 방문, 조사, 일정, 회의, 이야기(얘기), 공부, 임기, 여행, 촬영, 대학, 생(生), 작업...’ 등이 있다.

(35) 가. 노인은 말을 마치자 획 일어나 자리를 떴다.

(이태준 외 13인, 달빛에 길을 물어, 한국경제신문사, 1995)

가’. 노인은 말을 끝내자 획 일어나 자리를 떴다.

나. 기초 학교를 마친 후에는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중등학교의 단계에 들어간다.

(우리교육 편집부, 우리교육 중등용 9월호, 우리교육, 1994)

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다시 신문을 펼쳐 들었다.

(정종명, 숨은 사랑, 동아출판사, 1993)

(35가)에서 말을 하는 화자가 말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목표나 기준에 미칠 때 ‘말을 마치다’로 사용할 수 있다. 타동사 마치다와 ‘끝내다’는 의미와 그 쓰임에 있어서 가장 유사함을 보였다. (35가)에서 ‘말을 마치다’는 (35가’) ‘말을 끝내다’로 바꾸어 사용해도 맞는 말이지만 다소 의미 차이를 보인다. ‘말을 마치다’에서 말을 완전히 다 마치지 못해도 자기

의지대로 스스로 끝낼 수 있다. 자기 의지대로 목표나 기준과 상관없이 더 이상 말 안 하면 ‘끝내다’로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끝내다’는 인간의 의지 개입을 통해 종결될 수 있지만, ‘마치다’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하더라도 기존 목표나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나)에서는 정해진 학교 기간이나 학교 과정을 다 규정대로 끝낼 때 ‘학교를 마치다’로 사용할 수 있다. (35다)에서는 정해진 식사 시간이 다 지나가거나, ‘식사하는 양’이라는 정해진 기준을 다 먹어서 식사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식사를 마치다’로 사용한다.

또한 ‘마치다’와 공기하는 목적어 ‘일생, 생(生), 세상, 삶’을 미루어 보아 ‘그치다’는 사람이 생(生)을 ‘종결’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36) 가. 그는 14 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정치 기강을 한 번도 바로잡지 못하고 병으로 일생을 마쳤다.

(계몽사, 계몽사학생백과사전, 계몽사, 1994)

나.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산에 들어가 남은 생을 마쳤다.

(진경환·우용순 외, 고전문학 이야기 주머니, 도서출판 녹두, 1993)

(36)에서 사망 판정 기준에 도달해서 ‘일생/생을 마치다’로 사용한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 ‘마치다’의 목적어는 주로 목표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의지가 개입하더라도 자기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고 정해진 목표나 기준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4.2.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부사의 공기

세종 말뭉치와 연세 말뭉치에서 나온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부사의 공기 관계는 <표13>과 같다.

<표13>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부사의 공기 관계

공기 부사	그만두다	그치다	끝나다	끝내다	마치다
이따	○	○	○	○	○
그냥	○	○	○	○	○
완전히	○	○	○	○	○
아직	○	○	○	○	○
거의	○	○	○	○	○
이제	○	○	○	○	○
좀	○	○	○	○	-
다	○	○	○	○	○
얼른	○	○	○	○	○
그만	-	○	○	○	-
이만	-	○	○	○	○
빨리	○	○	○	○	○
막	-	○	○	○	○
모두	○	○	○	○	○

15) 사람의 ‘생’을 ‘종결’하는 자리에 ‘끝내다’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마치다’의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한다. ‘일생을 끝내다’는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방	-	○	○	○	○
잘	○	○	○	○	○
벌써	○	○	○	○	○
이미	○	○	○	○	○
대충	-	-	○	○	○
마저	-	-	-	○	○
어서	○	○	○	○	○
이대로	○	○	○	○	○
바로	○	○	○	○	○
일찍	○	-	○	○	○
적당히	-	-	○	○	-
간단히	-	-	○	○	○
원만히	-	-	○	○	○
스스로	○	○	-	○	-
잠시	○	○	-	-	-
아예	○	-	-	-	-
무사히	-	-	○	○	○
못	○	○	-	○	○
안	○	○	○	○	○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공기할 수 있는 부사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3>에서 보이는 것처럼 세종 말뭉치와 연세 말뭉치에서 ‘일찍’, ‘적당히’, ‘간단히’와 ‘원만히’는 ‘그치다’와 공기하는 예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에서는 ‘일찍’, ‘적당히’, ‘간단히’와 ‘원만히’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일찍’은 ‘일정한 시간보다 이르게’라는 의미이고, ‘적당히’는 ‘정도에 알맞게’나 ‘엇비슷하게 요령이 있게’라는 의미이고, ‘간단히’는 ‘단순하고 간략하게’, ‘간편하고 단출하게’와 ‘단순하고 손쉽게’라는 의미이고, ‘원만히’는 ‘순조롭게’라는 의미이다. ‘일찍’, ‘적당히’, ‘간단히’와 ‘원만히’ 같은 부사는 정도 부사이다. 이들은 어떠한 기준에 어떠한 정도만큼 미치는가를 나타낸다.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도, 기준’이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치다’가 어떠한 정도, 기준을 나타내는 정도 부사와 공기할 수 없다는 점은 ‘그치다’가 목표나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 사용된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사안이다.

<표13>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사 ‘스스로’는 ‘끝나다’, ‘마치다’와 공기하는 예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스로’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자신의 힘으로/ 남이 시키지 아니하였는데도 자기의 결심에 따라서’라는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사 ‘스스로’는 ‘자신의/자기의’와 같이 자신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부사와 공기할 수 없다는 점은 ‘끝나다’가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 사용된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는, ‘마치다’가 목표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의지가 개입하지만, 자기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자기 의지대로 계속할 수 없음을 반증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스스로’라는 부사가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며, 자신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가 결여된 ‘끝나다’, 의지보다 기준이 더 중요한 ‘마치다’와는 공기할 수 없다.

<표13>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부사 ‘잠시’와 공기할 수 있는 동사는 ‘그만두다’와 ‘그치다’이다.

(37) 가. 6.25 동란은 잠시 그만두고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보자.

(의식구조상으로본)한국인/현암교양신서1, 1970)

나. 바람 소리가 잠시 그쳤다.

(카인의 후예, 1950)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 ‘잠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면 ‘일시적인 멈춤’의 의미를 나타낸다. ‘끝’까지 ‘종결’되는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중단’되는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가)에서 ‘6.25 동란’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 (37나)에서 ‘바람 소리’는 일시적으로 멈추지만 언제든지 다시 날 수 있다. 따라서, (37가)에서 ‘그만두다’와 ‘그치다’가 ‘종결’이 아닌 ‘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세종 말뭉치와 연세 말뭉치에서 부사 ‘잠시’가 ‘끝나다’, ‘끝내다’, ‘마치다’와 공기하는 예문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끝나다’, ‘끝내다’, ‘마치다’가 ‘중단’이 아닌 ‘종결’로 구분된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사안이다.

<표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사 ‘아예’가 ‘그만두다’와만 공기하는 예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8) 김 씨는 작년 7월 다니던 회사를 아예 그만뒀다.

(조선일보 생활(93), 1990)

부사 ‘아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순전하게’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사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수식하면 ‘종결’을 의미하게 된다. (38)에서 ‘김 씨’는 앞으로 일하던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그 곳에서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회사에서 일하며 출근하던 것을 ‘종결’한 것이다. 앞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단어를 ‘종결’과 ‘중단’으로 구분한 것에 따르면 ‘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에는 ‘종결’의 의미가 있다. 이미 ‘종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사 ‘아예’와 중복하여 공기하기 어렵다. <표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사 ‘아예’가 ‘그만두다’와만 공기하는 것은 ‘그만두다’가 ‘종결’이 아닌 ‘중단’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사안이다.

5. 결론

본 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에 대해 한국어 교육에의 제언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5.1. 본문의 요약

본고는 사전 자료와 말뭉치에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법 정보, 문형 정보, 공기 명사 및 부사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각각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인 중국어 단어와 한국어 단어 간의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어 사용에 혼란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에 대해 분석하여 실제 사용에 있어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이 논문의 목적을 두었다. 본문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섯 단어의 문법 정보와 사전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그 중 단어 형성 연구를 통해 ‘그치다’와 ‘마치다’는 어떠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일어이고, ‘그만두다’, ‘끝나다’, ‘끝내다’는 결합이 이루어진 합성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사 분류를 통해 ‘그만두다’, ‘끝내다’는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이고, ‘끝나다’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이다. 그리고 ‘그치다’, ‘마치다’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겸하여 쓸 수 있는 양용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전 의미 분석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던 것은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는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일들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슷해 보이지만 ‘그만두다’는 ‘중단’, ‘끝나다/끝내다/마치다’는 ‘종결’, ‘그치다’는 ‘중단이나 종결이 다 가능’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문형 정보에 관하여 사전과 말뭉치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자동사 ‘끝나다’는 문형 ‘NP-이 끝나다’와 ‘NP1-이 NP2-{으로/과} 끝나다’에 사용되고 이러한 문형에서 ‘NP-{에/에서/에게/처럼}’과 같은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으로 실현 가능하다.

타동사 ‘끝내다’는 문형 ‘NP1-이 NP2-을 끝내다’와 ‘NP1-이 NP2-을 NP3-으로 끝내다’에 사용되고 이러한 문형에서 ‘NP-{에/에서/에게/처럼/과}’와 같은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으로 실현 가능하다.

타동사 ‘그만두다’는 문형 ‘NP1-이 NP2-을 그만두다’에 사용되고 이러한 문형에서 ‘NP-{으로/에/에서/처럼}’과 같은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으로 실현 가능하다.

양용동사 ‘그치다’가 자동사일 때는 문형 ‘NP-이 그치다’와 ‘NP1-이 NP2-{에/으로} 그치다’에 사용되고 이러한 문형에서 ‘NP-{에서/에게/처럼}’과 같은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으로 실현 가능하다. ‘그치다’가 타동사일 때는 문형 ‘NP1-이 NP2-을 그치다’, ‘NP1-이 NP2-을 NP3-으로 그치다’와 ‘NP1-이 NP2-에 NP3-을 그치다’에 사용되고 이러한 문형에서 ‘NP-에서’와 같은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으로 실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양용동사 ‘마치다’가 자동사일 때는 문형 ‘NP-이 마치다’에 사용되고 이러한 문형에서 ‘NP-에서’와 같은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으로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마치다’가 타동사일 때는 문형 ‘NP1-이 NP2-을 마치다’에 사용되고 이러한 문형에서 ‘NP-{으로/에/에서/에게/처럼/과}’와 같은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으로 실현 가능하다.

정리한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만두다’와 ‘그치다’는 ‘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달리 ‘그만두다’나 ‘그치다’가 ‘서술어’로 사용된 문장에서 ‘NP-과’라는 부사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만두다’는 ‘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와 달리 ‘그만두다’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문장에서 ‘NP-에게’라는 부사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어 정보를 살펴보면, 먼저, 크게 목표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그치다’의 경우는 어떤 목표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절로 ‘중단’이나 ‘종결’을 의미한다. 주로 ‘눈’, ‘비’ 등과 같은 기상과 관련된 현상이나, ‘소리’, ‘울음’, ‘웃음’, ‘말’ 등과 같은 소리 및 소리 나는 경우에 ‘그치다’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에 ‘그만두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경우는 어떤 목표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목표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또 다시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것에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이 정해진 목표나 기준에 도달된 후 저절로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것이 되면 ‘끝나다’와 자동사 ‘마치다’를 사용한다. 인간의 의지 개입으로 인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것이 되면 ‘그만두다’, ‘끝내다’와 타동사 ‘마치다’가 사용될 수 있다.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으로 인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것은 다시 기준과 의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 나뉜다. 기준이 의지보다 더 중요할 때는 타동사 ‘마치다’를 사용하고, 의지가 기준보다 더 중요할 때는 ‘끝내다’와 ‘그만두다’로 구분할 수 있다.

‘끝내다’와 ‘그만두다’는 다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고 ‘종결’하면 ‘끝내다’,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중단’하면 ‘그만두다’로 구분할 수 있다.

연어 정보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14>와 같다.

<표14>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연어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정리

	목표나 기준 X	목표나 기준 O			
		인간의 의지 개입 X	인간의 의지 개입 O		
			기준 > 의지	의지 > 기준	
				중단	종결
그치다	O				
끝나다		O			
마치다		O(자동사)	O(타동사)		
끝내다					O
그만두다				O	

5.2. 한국어 교육에의 제언

앞서 살펴봤듯이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의 사전적 의미는 유사하지만 문법적, 의미적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특히, ‘그만두다’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 목표나 기준이 도달하기 전에 자격이나 직업, 직책을 중단하는 상황에 사용된다. ‘그치다’는 목표나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단어와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끝나다’는 주로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없고 어떤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면 저절로 종결이 되는 상황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끝내다’는 주로 목표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마치다’는 목표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의지가 개입하지만, 자기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사용된다. 위와 같은 정리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얻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얼기에는 한국인에게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 교육에 있어서 사전적 의미 위주의 교육이 아닌, 단어별 어떤 문형에서 사용 가능한지, 어떤 명사와 공기 빈도가 높은지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병행하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모국어와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 한국어 단어의 의미와 사용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 문형 연구를 통해서 ‘그만두다’나 ‘그치다’가 ‘서술어’로 사용된 문장에서 ‘NP-과’라는 부사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그만두다’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문장에서 ‘NP-에게’라는 부사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정 표현에서 ‘그만두다/그치다/끝나다/끝내다/마치다’는 모두 긴 부정 표현과 공기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끝나다’가 ‘못 끝나-’와 같은 부정 표현을 자주 쓰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형 사용에 있어 차이점에 대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수한다면 단어의 구분과 사용에 있어서 혼란과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연어 정보 정리에서 ‘그만두다’는 주로 자격이나 직업, 직책과 관련된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 그리고 ‘그치다’는 주로 기상과 관련된 단어, 소리 및 소리 나는 행위와 관련된 단어, 유정물의 심리와 관련된 단어와 사용된다. 또한 ‘마치다’는 ‘끝나다’, ‘끝내다’와 쓰임이 유사했다. ‘마치다’는 타동사로 주로 사용되며, 의미상 자동사로 쓰여야 될 경우 주로 ‘끝나다’로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수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각 단어별 공기 빈도가 높은 특징에 대해 제시한다면, 그 사용에 있어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어 단어 교육에 있어서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사전 의미에서 출발하여 동사별 가능한 문형과 연어에 대한 내용이 병행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교수자들에게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현화(2007), 「한국어 교재의 문형 유형 분석 - 문형 등급화를 위해 -」, 『한국어 교육』 18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1쪽.
- 고영근(1969), 「국어의 문형 연구 시론」,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고영근(2014), 「민족어 의존, 결합가 문법과 그 유형론적 접근 -언어 유형론 노트」, 『독어학』 29, 한국독어학회, 1-34쪽.
- 고영근·구본관(201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국립국어원(2005가),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
- 국립국어원(2005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경원·김철호(2010),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 유토피아.
- 김동국·이상률(2013),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교육 방안 연구」, 『언어과학』 20권 4호, 한국언어과학회, 19-34쪽.
- 김순길(2014), 「기초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방안」, 『한중인문학연구』 44, 한중인문학회, 303-328쪽.
- 김문오(1996), 「자/타동 양용동사의 범주와 문형」, 『어문학』 57, 한국어문학회, 1-19쪽.
- 김준기(2000), 『한국어 타동사 유의어 연구』, 한국문화사.
- 김혜숙(1998), 「한국어 기본 문형 설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22권, 국어국문학회, 12-47쪽.
- 노금송(2003),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 노병호(2015),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어휘 오류를 중심으로」, 『한국 융합학회 논문지』 6권 5호, 한국융합학회, 131-142쪽.
- 노은희(1999),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문형 빈도 조사」, 『국어 교육 연구』 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83-298쪽.
- 리유·김영주(2018),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유의어 지식 양상」, 『한국어 의미학』 62, 한국어의미학회, 73-100쪽.
- 문금현(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언어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 한국어교육학회, 217-250쪽.
- 문금현(2004가), 「한국어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5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3-92쪽.
- 문금현(2004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미 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 의미학』 16, 한국어의미학회, 143-177쪽.
- 박종호·황경수(2012), 「한국어 동사 유의어 교육 방안에 관한 소고 -3쌍의 동사 유의어를 대상으로」, 『새국어 교육』 92, 한국국어교육학회, 419-443쪽.
- 박재남(2002),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범기혜(2013),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혼동어 정보에 대한 검토」, 『한국사전학』 21, 한국사전학회, 135-155쪽.
- 봉미경(2005), 「시간부사의 어휘 변별 정보 연구 -유의어 ‘방금’과 ‘금방’의 분석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14-139쪽.
- 배해수(1977), 「국어 문형의 연구(國語 文型的 研究)」, 『어문논집』 20, 민족어문학회, 469-480쪽.

- 손남익(1996), 「국어 부사와 수식 대상」, 『한국어학』 4, 한국어학회, 47-66쪽.
- 손연정(2019), 「한국어 유의어 목록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 인지 행위 동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84, 한국어학회, 59-89쪽.
- 신서인(2017), 『한국어 문형 연구』, 태학사.
- 여숙연(2017), 「숙달도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연어 습득 연구 -목술 관계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화』 22,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43-66쪽.
- 유현경·강현화(2002), 「유사관계 어휘정보를 활용한 어휘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44-269쪽.
- 이선영, 서지혜, 정해권(2017),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통사·의미 처리에 대한 행동 반응 연구」, 『새국어 교육』 111, 한국국어교육학회, 61-82쪽.
- 이소현(2004),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형용사 ‘부끄럽다’의 유의어 의미 변별의 기초 연구 및 지도방안 ‘부끄럽다, 창피하다, 쑥스럽다, 수줍다, 수치스럽다’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3,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122-142쪽.
- 이익섭·이상역·채 완(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이익섭·채 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 임근석(2002), 「현대 국어의 어휘적 연어 연구」, 서울대학교 문학 석사 논문.
- 임근석(2010), 『한국어 연어 연구』, 월인.
- 한유석(2014), 「한국어 유의어 사전 구축에 관한 연구」, 『언어학』 22권 1호, 대한언어학회, 169-182쪽.
- 허재영(2007),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장 구조와 문형 학습」, 『어문연구』 53, 어문연구학회, 455-479쪽.
- 홍은진(2003), 「한국어 학습자들의 유의어 사용 실태 분석과 교육 방안」,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 1,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331-380쪽.
- 홍재성 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44-45쪽.
- 황국정(2004), 「15세기 국어 타동사의 기본 문형 연구」, 『한국 언어 문학』 53, 21-40쪽.
- B Rudzka · J Channel · Y Putseys · P Ostyn(1981), 『The Words You Need: Student's Book』, Macmillan Education, 24-25쪽.
- CHEN XU(2018), 「한·중 ‘계속’류 시간부사 유의어 대조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LI YAN(2016), 「말뭉치 기반 ‘기쁘다’와 ‘즐겁다’의 의미 차이와 사용 양상」,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A study of Korean 'geumanduda/geuchida/kkeutnada/kkeutnaeda/machida'
corresponding to Chinese 'jieshu'

WANG YUAN

There are times when a Korean word does not correspond to the word's literal translation in a different language. One example is the Chinese word 'jieshu', which corresponds to Korean 'geumanduda/geuchida/kkeutnada/kkeutnaeda/machida'. When the words of foreign native language do not correspond to that of Korean,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one can replace that Korean word with diverse kinds of more appropriate words. However, every word carries a different nuance based on the context, so using different words could be difficult. Choosing the right word for the right situation could be easy for native Korean speakers, but it could be a great challenge for non-native Korean speakers.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Chinese word 'jieshu' and Korean words 'geumanduda/geuchida/kkeutnada/kkeutnaeda/machida' by exploring the grammatical information, dictionary definition, the collocations of these words and a dverb co-occurrence relation, so that the Chinese native speakers will be accurately able to use the Korean words that properly correspond to 'jieshu'. This study consists of 5 chapters with the following contents.

Chapter 1 explains the main purpose, method, and subject of the study.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Chinese word 'jieshu' and Korean words 'geumanduda/geuchida/kkeutnada/kkeutnaeda/machida' so that Chinese learners trying to learn Korean can accurately choose the right word.

Chapter 2 studies the grammatical information of the Korean words 'geumanduda/geuchida/kkeutnada/kkeutnaeda/machida', the classifies the worlds based on the information found in the dictionary.

Chapter 3 examines the sentence information. This examines sentence pattern information about these Korean verbs, and studies the sentence information of the Korean words 'geumanduda/geuchida/kkeutnada/kkeutnaeda/machida'. We examine the sentence information in the existing dictionary, especially intransitive verb, transitive verb, and a dual verb between an intransitive verb and a transitive verb. In addition to recognizing 'geumanduda/geuchida/kkeutnada/kkeutnaeda/machida's sentence type in the existing dictionary, we also explore more abouts the sentence type information in corpus. Beyond just basic sentence types, this study also compares and contrasts the words by studying the negative statement sentence type structure.

Chapter 4 clarif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ds by looking at the collocations and co-occurring adverbs of the words 'geumanduda/geuchida/kkeutnada/kkeutn

aeda/machida'. The intransitive verb analyzed subject-predicate collocation, and the transitive verb analyzed verb-object collocation. In case of a dual verb between an intransitive verb and a transitive verb analyzed subject-predicate collocation and verb-object collocation both of them. In addition, the difference was clarified by analyzing adverb co-occurrence relation of 'geumanduda/geuchida/kkeutnada/kkeutnaeda/machida'.

Chapter 5 summarizes this study and aims to suggest to Korean education based on the study of the words 'geumanduda/geuchida/kkeutnada/kkeutnaeda/machida'.

This study has discussed the meaning, grammatical structure, and collocation information of the Korean words 'geumanduda/geuchida/kkeutnada/kkeutnaeda/machida' that correspond to the Chinese word 'jieshu'.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inds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s among the multiple Korean words that correspond to the Chinese word 'jieshu'.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in anticipation that this study will help in case the Korean word does not correspond to one's native language. It is expected that diverse linguistic studies will be conducted for the benefit of Korean language learners.

keyword: Chinese learners, corpus, sentence pattern, co-occurrence frequency